

대학생 읽기동기 측정도구 타당화 연구*

이 채 리¹⁾ 김 연 하²⁾ Xu, Jiayu³⁾ 김 수 연⁴⁾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Schutte와 Malouff(2007)가 개발한 성인 읽기동기척도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 Cronbach's α , 요인을 재구성하고 적률상관분석을 사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3문항이 제외되고 최종적으로 18문항으로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8문항은 총 4요인(삶의 한 부분으로서 읽기, 정보획득을 위한 읽기, 인정받기 위한 읽기, 지적도전을 위한 읽기)으로 분류되었다. 18문항 전체의 Cronbach's α 는 .872, 각 요인들 또한 .633~.860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수렴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병기(2015)의 독서동기 및 무동기, 1일 읽기 시간과 본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 읽기동기 총점은 독서동기, 1일 읽기 시간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무동기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성된 읽기동기 척도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적용하는데 있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측정도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읽기동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읽기부진 및 읽기장려와 관련된 여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대학생 읽기동기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타당도

* 본 연구는 2017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확장시킨 것임.

1)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2) 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E-mai: yeonhakim@khu.ac.kr)

3)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4)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I. 서 론

인간의 읽기 능력은 지적 성장, 정보의 수집과 활용, 사회적 교류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읽기 능력은 학생으로서 학교에서의 성공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초석도 되며 읽기능력을 갖지 않는 사람은 자기실현과 학교, 직장에서의 성공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는다(Anderson et al., 1985). 심지어 읽기는 인간의 심리적, 신체적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추는 데 읽기치료법(cognitive bibliotherapy)은 유효한 치료방법임이 입증되었고(Modolvan, Cobeau, & David., 2013), 노인성 치매의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Verghese et al., 2003). 이와 같이 개인의 발전과 행복, 나아가 사회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읽기의 기능과 의미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읽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그렇지 못하다. 이는 읽기의 과정에 나타나는 독자의 능동성, 즉 읽기동기(reading motivation)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기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몰입하는 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다. 읽기동기란 읽기행동을 유발, 촉진, 지속시키는 심리적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임효진, 2016). 읽기동기는 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Baker와 Wigfield(1999)는 초등학교 5-6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의 읽기동기와 읽기활동, 읽기성취도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Anderson, Wilson,

Fielding(1988)은 읽기동기가 높을수록 아동들이 읽기활동을 더 많이 하고 어휘발달과 문장이해도도 읽기동기가 낮은 아동보다 뛰어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읽기동기는 교육, 도서관, 출판 등 읽기 교육이나 읽기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학문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 왔다.

인간의 읽기동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다음과 같다. Wigfield와 Guthrie(1995)는 105명 아동을 대상으로 73문항, 11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아동용 읽기동기척도(Motivation for Reading Questionnaire, MRQ)를 제안하였다. 하위요인은 구체적으로 읽기효능감(reading efficacy), 호기심(curiosity), 몰입(involvement), 중요성(importance), 인정(recognition), 도전(challenge), 성적(grades), 경쟁(competition), 준수(compliance), 회피(reading work avoidance), 사회적 작용(social purpose)이 포함된다. 그 후에 Watkins와 Coffey(2004)는 MRQ에 대한 후속연구를 초등학교 1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54문항 8요인(읽기효능감, 호기심, 몰입, 인정, 성적 및 준수, 경쟁, 회피, 사회적 작용)으로 구성된 척도를 제안하였다. Wang과 Guthrie(2004)는 MRQ를 초등학교 4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읽기동기를 내적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적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하였고, 호기심, 몰입, 도전, 인정, 성적, 사회적 작용, 준수와 경쟁의 8개 하위요인을 제안하였다. Gambrell, Palmer, Codling과 Mazzoni(1996)는 초등학교 3-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MRP(motivation to read profile)라는 읽기동기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Malloy,

Marinak, Gambrell과 Mazzoni(2013)는 MRP에 디지털 읽기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MRP-R(motivation to read profile-revised)를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도 MRQ를 바탕으로 한 읽기동기 척도의 타당화 작업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권민균(2002)은 341명 초등학교 1, 3, 5학년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MRQ를 바탕으로 한 52문항 10개 하위요인(효능감, 도전심, 호기심, 몰입, 중요성, 인정, 상호작용, 경쟁, 순응, 회피)의 읽기동기 척도를 제안하였다. 박혜숙과 전명남(2007)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59개의 문항 9개 요인(읽기효능감, 인정, 사회성, 성적 순응, 목표 지향적 경쟁, 대인적 경쟁, 호기심, 몰입 및 회피)의 읽기동기 척도를 제안하였다.

한편, 임효진(2016)은 국내외 연구들을 바탕으로 읽기동기 문항들을 수집하고 예비조사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중학생용 읽기동기 척도를 개발하였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220명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통해, 능력신념 차원(효능감, 도전, 회피), 가치-성취목표 차원(흥미, 몰입, 중요성, 경쟁, 인정, 성적), 사회적 차원(사회적 상호작용, 순응)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제안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읽기 동기 척도는 읽기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동기들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읽기 동기 척도들은 측정대상이 대부분 아동, 청소년에 제한되어 있다(이영진, 조성만, 권태현, 2010; 최나야, 2017). 학업에 열중하는 시간이 대부분인 아동 청소년들의 읽기동기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령대에 따라 읽기

동기의 요인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읽기동기 척도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대학 시기는 입시위주의 학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의 책과 정보를 접하며 학문적·인격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이다. 국내에서 대학생들의 읽기동기를 탐색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정현옥과 김선남(2008)이 기존의 독서동기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자체 수집한 17문항으로 전북지역 대학생의 읽기 동기를 조사하고, 남녀 대학생 간 성차를 보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병기(2015)가 기존의 외국 척도의 문항을 분석하고 하위요인들을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라 재조합하여 성인의 읽기동기를 측정하는 6개요인 30문항 척도를 이론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병기의 척도 또한 실제 자료 수집을 거쳐 타당성이나 신뢰도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Schutte와 Malouff(2007)는 아동읽기동기 척도(MRQ)를 바탕으로 하여 호주에 거주한 여성 136명, 남성 80명, 총 220명 성인을 대상으로 하위요인 4개를 포함한 성인읽기동기 척도(Adult Reading Motivation Scale, ARMS)를 개발하였다. 피험자의 평균연령은 28.62세였고 18-77세인 연구대상이 다양하게 포함되었다. 하위요인은 구체적으로 정체감 표현을 위한 읽기(reading as part of self), 읽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읽기(reading efficacy), 인정받기 위한 읽기(reading for recognition), 학업이나 일에서의 성공을 위한 읽기(reading to do well in other realms)이다. ARMS는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별 부하량이 우수하고, 내적합치도도 양호하다. 또한 성인의 읽기 만족감과 읽기시간을 잘 예측할 수 있었다(Schutte &

Malouff, 2007). 대학생들의 읽기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ARMS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읽기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인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읽기동기에도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Mucherah & Ambrose-Stahl, 2014), Schutte와 Malouff(2007)의 ARMS를 한국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요인을 구성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초등학교이나 중학생의 읽기 경향과 읽기동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읽기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들의 읽기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연구도구가 사실상 없는 것에 기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Schutte와 Malouff(2007)의 ARMS를 변안하여, 요인구조를 재구성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읽기동기를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읽기동기를 파악하고 읽기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적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 읽기동기척도를 구성하는 요인과 요인 내 문항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 읽기동기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 읽기동기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212)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자	84(39.0)
	여자	128(60.0)
주거 지역	서울/경기	157(71.0)
	그 외 지역	55(25.0)
학년	1학년	28(13.0)
	2학년	36(16.0)
	3학년	57(26.0)
	4학년	91(42.0)
전공 분야	사회·인문계열	117(53.0)
	자연계열	25(11.0)
	공과계열	36(16.0)
	예술계열	21(9.0)
	기타	13(5.0)
읽기 시간	1시간 미만	84(38.0)
	1시간~2시간	77(35.0)
	2시간~3시간	34(15.0)
	3시간 이상	17(7.0)
읽기 매체	종이 책	83(37.0)
	핸드폰	90(40.0)
	신문	4(1.0)
	잡지	6(2.0)
	테블릿	12(5.0)
	컴퓨터	14(6.0)
	기타	3(1.0)
읽기 분야	스토리	106(48.0)
	전공 지식	42(19.0)
	사실	28(12.0)
	기사	26(11.0)
	기타	10(4.0)

성별은 남자가 84명(39%), 여자가 128명(60%)로 대부분 여학생이었으며, 주거지역은 서울 및 경기 지역이 157명(71%), 그 외 지역이 55명(25%)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많았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 91명(41%)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는 3학년 57명(25%), 2학년 36명(16%), 1학년 28명(12%) 순이었다. 그리고 전공별로는 사회인문계열이 117명(53%)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과계열이 36명(16%), 자연계열이 25명(11%), 예술계열이 21명(9%), 기타가 13명(5%)의 순이었다.

대학생들의 읽기 시간은 하루 1시간 미만이 84명(3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1시간~2시간 77명(35%), 2시간~3시간 34명(15%), 3시간 이상 17명(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읽기 매체로는 핸드폰이 90명(4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종이책 83명(37%), 컴퓨터 14명(6%), 태블릿 12명(5%), 잡지 6명(2%), 신문 4명(1%), 기타 3명(1%) 순으로 나타났다. 읽기 분야별로는 스토리가 106명(4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전공지식 42명(19%), 사실 28명(12%), 기사 26명(12%), 기타 10명(4%) 순이었다.

2. 연구도구

읽기동기

대학생의 읽기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Schutte와 Malouff(2007)가 개발한 '성인 읽기동기' 척도(Adult Reading Motivation Scale, ARMS)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ARMS 척도는 총 21개 문항, 4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를 자신의 정체성 일부로 생각하는 내용의 '정체감 표현을 위한 읽기(reading as part of self)' 8문항, 어려운 자료를 이해하거나 능숙하게 습득하는 내용의 '읽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읽기(reading efficacy)' 6문항, 타인에게 좋은 평가 및 인정을 받기 위한 내용의 '인정받기 위한 읽기(reading for recognition)' 3문항과 읽기 행위 자체가 원하는 영역에서의 성취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학업이나 일에서의 성공을 위한 읽기(reading to do well in other realms)'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양식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범주에 대한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2. ARMS 척도의 하위범주 및 신뢰도 계수

하위범주	문항번호	문항수
정체감 표현을 위한 읽기	2, 3, 4, 5, 6, 9, 10, 11	8
효능감 증진을 위한 읽기	1, 14*, 16, 17*, 19, 20	6
인정 받기 위한 읽기	12, 13, 15	3
학업이나 일에서의 성공을 위한 읽기	7, 8, 18, 21	4
전 체		21

주. *은 역산문항임.

독서동기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정된 ARMS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측정치로 이 병기(2015)의 독서동기 측정도구에서 일부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내재적 동기, 통합적 조절, 동일시 조절, 주입된 조절, 외적 조절, 무동기의 6개 하위범주로 구분돼 있으며, 범주별로 각 5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동기를 제외한 각 하위범주의 정의를 가장 잘 대표하는 1문항씩 총 5개를 선별하였고, 무동기는 5문항 모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양식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범주의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먼저 영어권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영어 전공자를 포함한 연구진이 ARMS 척도의 문항을 번역을 하고, 총 1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항의 이해도와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특이점이 보고되지 않아서 본 조사는 2017년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배포되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는 링크를 학생들에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내고, 다른 대학생들에게도 응답하도록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편의표집이며 눈덩이 표집이다. 총 22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무응답이 많은 질문지 8개를 제외한

21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대학생 읽기동기 측정 척도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의 내적 합치도 지수인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대학생 읽기동기 척도 내의 요인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파악하고 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대학생 읽기동기 척도의 문항 구성

우선 대학생 읽기동기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과 요인 내 문항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KMO 측도값을 이용하여 문항들 간의 관계가 다른 문항들과 얼마나 잘 설명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KMO 측도값은 .89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2143.969($df = 210$)였고, 이 값의 유의수준이 .000이므로 요인 분석이 가능한 공통된 요인

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21문항을 모두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총 4개로 확인되었으므로, 4요인 21문항으로 1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느 요인에도 0.5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갖지 못하는 1, 8, 21문항들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최종적으로 18문항으로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KMO = .88$;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chi^2(153) = 1777.23, p < .05$).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총 4개로 확인되었으며 각 요인들의 설명량은 1요인은 24.79%, 2요인은 16.10%, 3요인은 11.16%, 4요인은 10.68%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1요인은 읽기 자체가 삶에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는다는 내용을 담은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읽기’라고 명명하였다. 2요인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읽기가 개인의 목표달성과 연관이 있음을 반영해주는 문항들이었다. 따라서 ‘정보 획득을 위한 읽기’라고 명명하였다. 3요인은 읽기를 통해서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반영하는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인정받기 위한 읽기’라고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4요인은 읽기가 지적인 성취를 위한 자발적 도전과 관련이 있음을 반영하는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지적 도전을 위한 읽기’라고 명명하였다. 따라서 ARMS의 3문항을 제외한 18문항으로 재구성된 문항들이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에 사용되었다.

2. 대학생 읽기동기 척도의 신뢰도

대학생 읽기동기 척도 총 18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네 개의 하위요인들의 문항내적신뢰도를 산출하였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 읽기동기 척도 18문항 전체의 Cronbach's α 는 .872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 도 구해본 결과, 1요인(삶의 한 부분으로서 읽기)은 .860, 2요인(정보 획득을 위한 읽기)은 .776, 3요인(인정 받기 위한 읽기)은 .739 그리고 4요인(지적 도전을 위한 읽기)은 .633으로 신뢰도가 산출되었다.

3. 대학생 읽기동기 척도의 타당도

대학생 읽기동기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하위요인들과 이병기(2015)의 독서동기척도 발췌한 5문항의 합, 이병기(2015)의 무동기 6문항의 합, 그리고 1일 읽기 시간

표 3. 제외 문항의 요인부하량

문항	1	2	3	4
1. 책이나 기사가 흥미롭다면, 나는 어려워도 개의치 않고 읽는다.	.212	.476	.314	-.091
8. 업무 성과 또는 대학 성적은 나의 독서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337	.450	.327	.274
21. 나는 업무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서를 한다.	.297	.432	.377	.381

표 4. 대학생 읽기동기 척도의 요인구성

문항	성분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읽기	정보 획득을 위한 읽기	인정 받기 위한 읽기	지적 도전을 위한 읽기
5.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811			
6. 다른 활동과 비교했을 때, 독서는 내게 중요한 활동이다.	.803			
9. 나의 독서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하다.	.691			
11. 독서는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680			
2.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674			
16. 나는 어려운 책이나 기사를 읽는 것을 좋아한다.	.558			
4. 나는 친구들과 즐겨 읽었던 책이나 기사를 서로 주고받는다.	.547			
3. 친구들은 내가 독서를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 가끔 놀란다.	.535			
10. 나는 빨리 읽는다.		.733		
18. 나는 내 업무나 수업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읽는다.		.673		
7. 나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미리 그 자료를 잘 읽어둔다.		.617		
19. 나는 어려운 책이나 기사를 이해하는데 자신이 있다.		.577		
20. 나는 좋은 독자이다.		.553		
12.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중요하다.			.888	
13. 나는 내 지식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읽은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좋아한다.			.876	
15.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			.552	
14. 나는 전문적인 자료를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794
17. 나는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 자료를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558
고유값	6.664	2.219	1.291	1.121
설명분산(%)	24.799	16.108	11.161	10.683
누적분산(%)	24.799	40.906	52.067	62.750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8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777.234	
	자유도		153	
	유의확률		.000	

표 5. 각 요인 별 신뢰도

(N = 212)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읽기	2, 3, 4, 5, 6, 9, 11, 16	8	.860
정보 획득을 위한 읽기	7, 10, 18, 19, 20	5	.776
인정 받기 위한 읽기	12, 13, 15	3	.739
지적 도전을 위한 읽기	14*, 17*	2	.633
전 체		18	.872

주. *은 역산문항임.

표 6. 대학생 읽기동기척도 하위요인 및 총점의 수렴타당도

(N = 212)

하위요인	무동기	독서동기	1일 읽기 시간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읽기	-.61**	.71**	.55**
정보 획득을 위한 읽기	-.56**	.65**	.48**
인정 받기 위한 읽기	.11	.09	.02
지적 도전을 위한 읽기	-.54**	.55**	.37**
읽기동기 총점	-.61**	.75**	.55**

** $p < .01$.

과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읽기 동기 총점은 무동기(이병기, 2015)($r = -.61, p < .01$)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독서동기($r = .75, p < .01$) 및 1일 읽기 시간($r = .55,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읽기 동기의 하위요인인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읽기는 무동기($r = -.61, p < .01$)와 부적상관을, 독서동기($r = .71, p < .01$) 및 1일 읽기 시간($r = .55, p < .01$)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정보 획득을 위한 읽기는 무동기($r = -.56, p < .01$)와 부적상관을 보였고 독서동기($r = .65, p < .01$), 1일 읽기 시간($r = .48, p < .01$)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또한 지적도전을 위한 읽기도

무동기($r = -.54, p < .01$)와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독서동기($r = .55, p < .01$), 1일 읽기 시간($r = .37, p < .01$)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인정받기 위한 읽기 요인은 무동기, 독서동기, 1일 읽기 시간과 유의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Schutte와 Malouff(2007)가 개발한 ARMS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읽기 동기척도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212명의 대학생은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chutte와 Malouff(2007)의 연구에서는 ARMS의 21문항이 모두 준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번 문항(책이나 기사가 흥미롭다면, 나는 어려워도 개의치 않고 읽는다), 8번 문항(업무 성과 또는 대학 성적은 나의 독서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21번 문항(나는 업무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서를 한다)이 제외된,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가 대학생들의 읽기동기를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Mucherah와 Ambrose-Stahl(2014)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읽기동기에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둘째, 두 번에 걸친 요인분석을 통해, ARMS의 18문항은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읽기', '정보 획득을 위한 읽기', '인정받기 위한 읽기', '지적도전을 위한 읽기'로 총 네 개의 요인으로 재구성되었다. 가장 큰 설명 분산을 가진 요인은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읽기였다. 수단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읽기가 아닌, 읽는 행위 자체에 본질적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읽기를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읽기동기에 큰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큰 설명 분산을 가진 요인은 정보획득을 위한 읽기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읽기를 통해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대학생들이 읽기를 하는 중

요한 이유임을 알 수 있었다. 3 문항의 인정받기 위한 읽기와 2 문항의 지적도전을 위한 읽기는 유사한 크기의 설명 분산을 나타내었다. 이는 읽기를 통해 자신의 지적능력을 과시하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것, 또는 스스로 지적역량을 개발하고, 도전하기 위해 읽는 것도 읽기를 위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읽기동기는 다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에 따라 특정동기가 다른 동기에 비하여 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이 가진 고유성은 읽기행위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대학생들의 읽기와 관련된 중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개인이 가진 읽기동기의 고유성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새롭게 구성되어진 대학생 읽기동기 척도의 신뢰도는 18문항 전체는 Cronbach's α 가 .872로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요인별 신뢰도를 구해본 결과, 요인1(삶의 한 부분으로서 읽기)은 .860, 요인2(정보획득을 위한 읽기)는 .776, 요인3(인정받기 위한 읽기)은 .739 그리고 요인4(지적도전을 위한 읽기)는 .633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본 척도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읽기 동기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인지 검토하기 위하여, 이병기(2015)의 척도에서 발췌한 문항 및 1일 읽기 시간과의 수렴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예측한 대로, 대학생 읽기동기 척도의 하위요인 점수 및 총점은 독서동기 및 1일 읽기 시간과 정적 상관을, 무동기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읽기 동기 하위요인 중에서 '인정받기

위한 읽기'는 독서동기, 무동기(이병기, 2015), 1일 읽기 시간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Schutte와 Malouff(2007)의 연구에서도 인정받기 위한 읽기는 1일 읽기 시간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도 읽기의 동기가 될 수는 있으나, 실제 읽기에 몰입하는 행위로는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정받기 위한 읽기동기가 높은 대학생들이 실제로 읽기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해 소개된 대학생 읽기동기 척도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적용하는데 있어 신뢰도나 타당성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소개된 대학생 읽기동기 척도는 향후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읽기동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학생들의 읽기 성향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읽기부진 및 읽기장려와 관련된 여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용 읽기동기 척도로 현장에서 간편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 척도를 재구성한 만큼, 확고한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읽기동기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입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표본 수가 적고 연구대상이 눈덩이 표집에 의한 편의표집이므로, 일반화 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표본 수집을 전국적으로 수집하여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병기(2015)의 도구를 제외하고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동기를 측정할 만한 기존의 도구가 없어서 타당화 검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하여 성인의 읽기동기를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가 개발되었으면 한다.

셋째, 읽기 동기는 읽기와 관련된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중요성이 있는 만큼 대학생들의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변인들과 읽기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읽기동기와 학업 성취, 졸업, 취업, 창업, 새로운 정보의 습득 및 활용 능력 등 대학생 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이나 성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통적인 읽기의 매체는 주로 책이나 신문이었으나 최근 웹과 웹 디바이스를 통한 읽기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이만수, 2004).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읽기 매체는 핸드폰이었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관심분야를 웹 매체를 활용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여 읽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대학생들 읽기동기 및 읽기 행위와 웹 매체의 관련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민균 (2002). 초등학생의 읽기동기에 관한

- 연구: 읽기동기의 구성요인, 학년과 성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23(3), 17-33.
- 문화체육관광부. (2009). 2009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박혜숙, 전명남 (2007). 초등학교 6학년 대상 독서동기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1(4), 969-988.
- 이만수 (2004). 대학생의 독서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D대학교 독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155-185.
- 이병기 (2015).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311-332.
- 이영진, 조성만, 권태현 (2010). 고등학생의 읽기 동기 요인분석. *독서연구*, 24, 345-386.
- 임효진 (2016). 중학생 읽기동기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종합연구*, 14(1), 149-174.
- 정현욱, 김선남 (2008). 대학생의 독서 동기와 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출판학회*, 54, 323-350.
- 최나야 (2017). 유아 문해활동 선호도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인간발달연구*, 24(1), 1-23.
- Anderson, R. C., Hiebert, E. H., Scott, J. A., Wilkinson, I. A., Becker, W., & Becker, W. C. (1985). *Becoming a nation of readers: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reading*. Washington, DC: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 Anderson, R. C., Wilson, P. T., & Fielding, L. G. (1988). Growth in research and how children spend their time outside of school. *Reading Research Quarterly*, 23(3), 285-303.
- Baker, L., & Wigfield, A. (1999). Dimensions of children's motivation for reading and their relations to reading activity and reading achievement. *Reading Research Quarterly*, 34(4), 452-477.
- Gambrell, L. B., Palmer, B. M., Codling, R. M., & Mazzoni, S. A. (1996). Assessing motivation to read. *The Reading Teacher*, 49(7), 518-533.
- Malloy, J. A., Marinak, B. A., Gambrell, L. B., & Mazzoni, S. A. (2013). Assessing motivation to read. *The Reading Teacher*, 67(4), 273-282.
- Moldovan, R., Cobeana, O., & David, D. (2013). Cognitive bibliotherapy for mild depressive symptomatology: Randomized clinical trial of efficacy and mechanisms of change.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0(6), 482-493.
- Mucherah, W., & Ambrose-Stahl, D. (2014). Relation of reading motivation to reading achievement in seventh-grade students from Kenya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Research, Practice, Consultation*, 3(3), 154-166.
- Schutte, N. S., & Malouff, J. M. (2007). Dimensions of reading motivation: Development of an adult reading motivation scale. *Reading Psychology*, 28(5), 469-489.
- Verghese, J., Lipton, R. B., Katz, M. J., Hall, C. B., Derby, C. A., Kuslansky, G., Ambrose, A. F., Slwinski, M., & Buschke, H. (2003). Leisure activities and the risk of dementia in the elderly.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8(25), 2508-2516.

- WANG, J. H. Y., & Guthrie, J. T. (2004). Modeling the effects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mount of reading, and past reading achievement on text comprehension between US and Chinese students. *Reading research quarterly*, 39(2), 162-186.
 - Watkin, M. W., & Coffey, D. Y. (2004). Reading motivation: Multidimensional and indeterminat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1), 110-118.
 - Wigfield, A., & Guthrie, J. T. (1995). *Dimensions of children's motivations for reading: An initial study* (Research Report No. 34). Athens, CA: National Reading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Georgia and University of Maryland.
- 1 차원고접수 : 2017. 07. 11.
수정원고접수 : 2017. 08. 13.
최종게재결정 : 2017. 08. 23.

Validation of the Reading Motivation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Lee, Chae Ri Kim, Yeon Ha Xu, Jiayu Kim, Soo Yeo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hee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propose a reading motivation scale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Adults' Reading Motivation Scale of Schutte and Malouff(2007). A total of 212 university students including 84 males and 128 females were surveyed online. Factors and items were reconstruct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cale were verified through Cronbach's α and correlation analysis. In the process of exploratory analysis, 3 items from the original scale were excluded because of low factor loadings, and the 18 items were categorized into four dimensions. The four factors that emerged from the process were named 'reading as part of life', 'reading to acquire information', 'reading for recognition', and 'reading for intellectual challenge'. The reliabilities of the new scale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were sound. The reliability of 18 items was .872, and the reliabilities of four factors ranged from .633 to .860. The total scores and sub-factor scores of the new scale had positive associations with reading time per day of the participants. Furthermore, reading motivation scores assessed with the new scal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cores measured by existing reading motivation item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newly proposed 18 item scale with four dimensions is a sound instrument for measuring reading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is instrument can be utilized for diverse studies and programs related to reading by Korean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reading motivation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validity